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반통일세력의 대결광란을 단호히 짓부셔나가자

6.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호소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4년이 흘렀다. 판문점선언은 장장 70여년 동안 이어진 민족분열의 고통과 수난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이정표이다.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었기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세계앞에 엄숙히 천명한 판문점선언은 이 땅 위에 무겁게 드리웠던 전쟁의 불기름을 일시에 가세내고 우리 겨레모두에게 통일을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배치되게 북남공동선언은 단 한걸음도 진척되지 못했으며 오며처럼 찾아왔던 평화의 봄, 통일의 훈풍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전쟁의 먹구름만이 더욱 짙어가고 있다.

북남사이의 불신과 반목, 대결의 굵은 길어지고 시대의 기슭으로 밀려났던 《주적론》이 또다시 되살아나고 동족을 겨냥한 《선제타격》망발들이 때없이 터져나오는 속에 방대한 핵전쟁무력이 조선반도에 쏠아들고있는것이 오늘의 엄혹한 현실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역행하는 온갖 도전을 파감히 뚫고 자주통일의 출몰을 앞장에서 열어갈 굳은 의지를 표명하면서 해내외의 전체 동포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1.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자!
자주는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나가는 여기에 민족의 존엄도 있고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이 있다.

지금까지 북남사이에서 채택된 모든 합의와 선언들의 첫 조항도, 기본정신도 민족자주문제이며 북남사이에 진행된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력의 기본방향도 민족자주를 고수하고 구현해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탈선하면 판문점선언을 비롯하여 아무리 품을 들여 채택한 좋은 선언들이 있다 해도 통일운동은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것이 우리가 또다시 찾게 되는 심각한 교훈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여야 한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철저히 복종시켜나 가야 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자!

민족내부문제,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그 누구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남에게 내맡기는 매우 배후행위이다.

외세와의 《동맹우선》을 떠들며 민족의 운명과 리익을 해치는 온갖 분렬주의적, 반통일적행위를 단호히 반대배격하자!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고 조선반도의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리익을 당당히 지켜나가자!
정세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었

2. 해내외의 온 겨레가 분명히 떨쳐버려야 민족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나가자!

지금 조선반도에는 다치면 터질듯한 첨예한 군사적긴장이 각일각 도화선을 향해가고있다.

때없이 터져나오는 대결망언들도 불은 불에 기름을 해대며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내외가 한결같이 단죄규탄하는 동족에 대한 《주적론》은 곧 전쟁의 예고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재앙을 몰아오는 반통일세력의 호전적당동을 짓부셔 버리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침략적인 외세를 끌어들이 민족의 삶에 타격을 입히는 모든 합동군사연습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전쟁의 화권을 완전히 제거해버려! 날로 로골화되는 일본의 독도강탈과 제침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압박과 탄압을 저지시키기 위한 전 민족적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

3. 북남선언들을 고수하고 뜨거운 통일애국의 마음으로 실천해나가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은 민족앞에 가로놓인 모든 난관과 도전을 라개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을 밝혀주는 민족공동의 이정표이다.

정세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었

다고 하여 북남선언들을 총정하여 하는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민족성원모두가 드높은 자주의 념과 뜨거운 민족애, 민족번영의 응지가 세차게 고동치는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무겁게 대하며 성실히 리행해나가자!

북남선언들을 지지하는 해내외의 각계각층이 굳게 손잡고 련대합을 강화하며 선언리행의 큰 걸음을 힘차게 내딛자!

북남선언들을 부정하는것은 곧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을 부정하는것이며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반민족적행위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선언들을 부정하고 거세말살하면서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는 반통일세력들의 온갖 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한 반통일분자들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자주의 념으로 불라고 통일애국의 승결로 높뛰는 8천만겨레의 드높은 기상을 결코 꺾을수 없다.

해내외의 전체 동포들이여! 모두가 애국, 애족의 뜨거운 열기와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민족자주, 반

전평화, 북남선언리행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반통일세력의 대결준동을 단호히 짓부셔! 자주통일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주재111(2022)년 5월 9일

조국통일위업실현의 진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을 제시하시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밝히신 때로부터 6년이 된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시는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있고 실현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의 투쟁방침으로 제시하신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에 관한 사상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을 빛나게 구현하여 나라의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진로를 뚜렷히 명시하고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에 판독되어있는 기본정신인 민족자주

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것은 민족분열의 70여년력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민족자주가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이라면 외세 의존은 민족의 영구분열과 망국의 길이다.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조국통일위업은 그 자체가 민족의 혈액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것이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이다.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인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전제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야말로 민족의 생존리권을 지키고 자주통일위업실현의 전제를 마련해나가는 정의로운 애국투쟁이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굳어져온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어느 한쪽의 제도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키고 통일할수 없는 민족적재난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 민족의 요구와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가장 공평하게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이룩하는 길밖에 없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의 통일원칙과 방도는 북과 남이 이미 합의한 민족공동의 대의이며 고귀한 전취물들이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에 관한 조국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있다. 철세의 애국자이시여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민족의 앞길을 확충하며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

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시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화발전이신 주체적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때 이 땅 위에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이 반드시 일떠서게 될것이다. **송승혁**

반통일대결정책은 과산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유석열대통령의 동족대결정책이 갈수록 명확히 드러나고있다. 《북비핵화》, 《북인권》이니 하며 《강력하고 실효적인 남북체제》와 《북인권재단》설립 등을 떠들고있는것이 바로 그들이다. 한편으로는 케케묵은 《북주적》론을 부활시키려 하는 가 하면 미전략자산을 남조선에 전회하고 《한》미련합군의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얼마전에는 유석열이 《안보상황점검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북의 핵,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위협에 대비하여 안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쯤썩었다.

이것은 유석열대통령이 동족대결정책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동족대결정책은 반민족적이며 시대착오적인것으로서 과산을 면할수 없다. 동족대결정책은 민족내부에서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고 북

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군위이다.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 결코 대결의 원인으로 될수 없다. 북과 남의 겨레는 한강토에서 한파를 이으며 찬란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여온 단일민족이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 할 동족이다. 하지만 유석열대통령은 《북은 주적》이라며 대결의 상대로 보고있다. 유석열대통령이 북남선언들을 전면부정하고 말할라하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그 무슨 《북비핵화》와 《북인권문제》에 대해 떠드는것은 한파를 나는 민족을 화해와 단합의 대상이 아니라 대결의 대상으로 보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동족대결정책은 민족의 머리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는 재앙의 씨앗이기도 하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반드시 대결과 군사적충돌을 불러오게 된다. 우리 민족이 맞서싸워야 할 원수는 침략적인 외세이다.

하지만 유석열대통령은 외세와는 《공조》하고 동족은 적대시하면서 위협천만한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리고있다. 이미 유석열의 입에서 《북은 주적》, 《북선제타격》과 같은 도발적인 폭언들이 서슴없이 튀어나온 가운데 《국방백서》에 《북정권과 북인군은 적》이라고 명기하였다.》고 하는것은 동족에 대한 적대관념의 뚜렷한 발로이다.

유석열대통령의 무분별한 대결정책은 두말할것도 없이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으로 된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유석열 《정부》의 구성은 리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 000》 따위를 거니나 닳은것, 지난 보수 《정권》들의 대결정책을 되살리겠다는것으로서 가뜩이나 불안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군사적충돌을 심화시킬것이라고 하면서 반유석열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역사는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린 대결광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한두번만 보여주지 않았다. 외세와 손잡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던 리승만역도와 《승공통일》에 미쳐남뛰다가 심복의 총에 맞아 비명횡사한 박정희역도, 《비핵, 개방, 3 000》 따위를 《대북정책》이라고 썩고 나왔던 리명박역도와 《통일대박론》을 쯤썩며 동족대결에 광분하다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혁역도의 비참한 운명이 이를 잘 말해준다.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리는것은 세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유석열대통령이 반민족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동족대결정책을 추구한다면 력사와 민족의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하게 되리라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본기자 박철남**



통일을 불러

인생말년을 련공애국, 통일애국의 길에 (3)



부친의 묘를 찾은 최덕신선생

1976년 2월 17일, 서울을 떠나 일본의 오사카로 향하는 비행기에 탄 승객들가운데는 60대의 나이이숙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군사독재 《정권》에 항렬을 느끼고 망명의 길에 오른 최덕신선생이었다. 그의 인생에서는 두번째로 되는 망명의 길이었다.

목월도 많았던 수십년세월을 돌이켜볼수록 최덕신선생의 가슴은 쓰리고 아팠다. 나름대로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녔건만 돌아보면 그것은 한갓 몸부림일뿐이었

던것이였다. 많은 일을 겪으면서야 선생은 제 주권이 없이 남이 하라는대로 하는 사람은 옹당한 수모를 받기마련이라는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외세가 주인노릇을 하는 남녘땅에서는 민족의 리익을 지키기 위한 정치도 없었고 민족경제도 없었으며 민족문화는 양봉에 물들어가고있었다.

이렇게 되어 최덕신선생은 남조선땅에 침을 벨고 또다시 기약할수 없는 이국의 들가에 몸을 던졌다. 미국에서의 망명생활은 덧없이 흘러가고있었다.

《유신》독재 《정권》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통일성업에 바쳐보겠노라 새로운 결심을 한 최덕신선생이였지만 그것은 막연하기 그지없는 일이였다. 인생말년에 이르러 또 다시 겪게 되는 망명생활은 어쩔지 나라없는 슬픔속에 어머니의 치마폭을 붙잡고 암흑강을 건너던 때나 나름대로 뜻을 품고 중국대륙을 종횡무진하던 때와는 다른것이였다. 드넓은 바위에 던져진 하나의 조약돌처럼 외롭고 허전할것이 늙은 몸이 스며드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선생은 나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해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허망한 꿈에 지나지 않았으며 남조선은 영리히 틀어쥐고 지배하려는 미국이 남아있는한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남조선사회에 대한 환멸이 커갈수록 두고 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공화국에 대한 동경의 마음이 선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허나 가고싶어도 가지 못하는 땅, 너무도 최스러운 인생으로 얼룩진 자신이 차마 몸을 담글수 없는 땅이였다. 그러나 진정한 정의가 있고 참된 통일이애국의 길이 있는 공화국의 품으로 쏠리는 가슴속진정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하여 선생은 꿈속에서도 그려보던 고향땅, 공화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하였다. 그의 방북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는 자기

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선생은 이제 도래하게 될 새로운 운명의 길에 대해 상상할수 없었다. 드디어 선생이 탄 비행기가 평양비행장(당시)에 착륙하였다. 선생의 묘소를 보러 온다는 순수 개인적인 자격을 가지고 오는것만큼 선생은 내릴 차비를 서두르지 않았다. 고향문턱을 조용히 넘어섰다가 물러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이때 누군가가 《최덕신선생이 어느분이십니까?》라고 하더니 어서 먼저 내릴 준비를 해달라고 하는것이였다. 뜻밖의 일인지라 선생은 생각할새도 없이 안내자가 이끄는대로 맨 선장으로 비행기에서 내렸다. 비행기밖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이며 정무원(당시) 부총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장을 비롯한 여러 일군들이 마중나와있었던것이였다.

한갓 망명객에 지나지 않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관례없는 우대에서 그리고 소녀애가 안겨주는 꽃다발에서 최덕신선생은 혈육의 정과 향취를 대번에 느낄수 있었다. 이날 저녁 선생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이 땅에서 받은 첫인상이 좀처럼 사라질줄 몰랐기때문이었다. 그렇수록 지나간 세월속에 묻힌것들이 어제일처럼 또렷하게 안겨들었다. 다음날 선생은 선친의 묘소를 안내되었다. 달리는 차안에서 공화국의 한 일군은 그에게 이런 사연을 전해주었다.

《최덕신선생이 해외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조국의 품을 찾아온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저희들에게 친히 전화를 걸어주시였습다. 선생의 조국방문과 관련하여 체류일정을 어떻게 짜놓았는가를 료해하신 수령님께서서는 최덕신선생이 조국에 오면 먼저 부친생각부터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선친님 최동오선생의 묘부터 찾아보게 하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어지러운 남조선땅에서, 불안한 해외망명생활속에서도 언제 한번 잊은적 없는 마음속생각까지 헤아려주시는 어머니수령님의 하느님같은 은혜에 최덕신선생은 그만 가슴이 뭉클하였다. **본기자**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를 기억하는 집회진행

지금으로부터 45년전인 1977년 4월 23일은 일본에 살던 배봉기할머니가 왜나라쪽발이들이 저지른 일본군성노예제피해를 조선녀성으로서 처음으로 《조선신보》지면을 통하여 고발한 날



이다. 이날을 맞으며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민협회 성차별철폐회가 주최하는 《일본군성노예제 부정용납하지 않는 4.23행동》이 진행되어왔다. 성차별철폐회에서는 배봉기할머니의 증언이 《조선신보》에 게재된 날인 4월 23일을 계기로 배봉기할머니를 비롯한 모든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성나라족속들의 만고죄악을 폭로단죄하기 위해 2015년부터 《4.23행동》의 명칭으로 각이한 계획들을 추진하여왔다. 올해는 《배봉기를 잊지 말자-웨치자, 노래하자, 미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를 용납하지 않으며 새세대들에게 일본군성노예제피해를 특별히 알려주

기 위한 목적에서 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에는 성차별철폐회의 성원들을 비롯한 동료, 학생, 일본시민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먼저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와 남조선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재미동포단체들에서 보내온 련대성전문이 낭독되었다. 이어 배봉기할머니를 비롯한 5명의 일본군성노예제피해녀성들의 증언이 각각 낭독되었다. 집회의 마지막에는 올해 《4.23행동》을 기념하여 제작된 주제가 《날아라》를 참 함께 가자라며 배우며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련대하여 투쟁해나갈 결의를 다

지였다. 이번 집회에는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새세대청년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인 김복동할머니를 연구하는 조선대학교 문학력사학부 4학년 한명례(21살)는 피해자할머니들의 증언자료를 접했을 때 《조국은 해방되었으나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인 할머니들에게 있어 진정한 해방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 문제의식이 자신의 연구동기로 이어졌고 《나는 녀성으로서, 조선사람으로서의 존엄이 깃뻛힌 할머니들의 온 경험은 자신의 일로 여겨졌다. 앞으로도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피해자들과 마음을 함께 하여 진정한 해결을 위해 투쟁해나갈 결의를 다

지였다. 이번 집회에는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새세대청년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인 김복동할머니를 연구하는 조선대학교 문학력사학부 4학년 한명례(21살)는 피해자할머니들의 증언자료를 접했을 때 《조국은 해방되었으나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인 할머니들에게 있어 진정한 해방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 문제의식이 자신의 연구동기로 이어졌고 《나는 녀성으로서, 조선사람으로서의 존엄이 깃뻛힌 할머니들의 온 경험은 자신의 일로 여겨졌다. 앞으로도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피해자들과 마음을 함께 하여 진정한 해결을 위해 투쟁해나갈 결의를 다

지였다. 이번 집회에는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새세대청년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인 김복동할머니를 연구하는 조선대학교 문학력사학부 4학년 한명례(21살)는 피해자할머니들의 증언자료를 접했을 때 《조국은 해방되었으나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인 할머니들에게 있어 진정한 해방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 문제의식이 자신의 연구동기로 이어졌고 《나는 녀성으로서, 조선사람으로서의 존엄이 깃뻛힌 할머니들의 온 경험은 자신의 일로 여겨졌다. 앞으로도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피해자들과 마음을 함께 하여 진정한 해결을 위해 투쟁해나갈 결의를 다